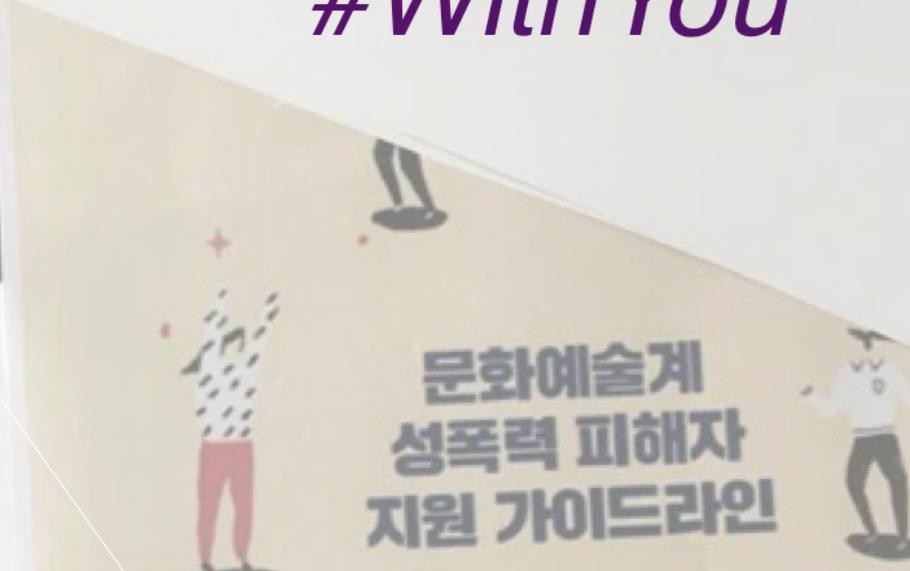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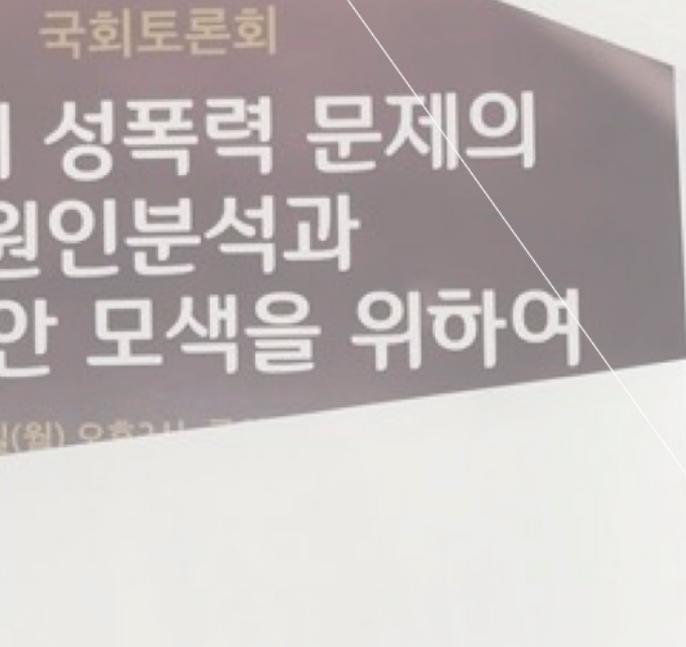


#MeToo
#With You



국회토론회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2018년 8월 20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유은혜(더불어민주당),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체조협회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문화연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별신고센터 집중지원팀)



토론회 순서

- ◆ 사회 :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 ◆ 인사말 : 유은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 ◆ 발제1. Me와 Too사이에서 체육계 미투는 왜 번지지 않을까를 묻다
: 정용철 (서강대 교수)
- ◆ 발제2. 체육계 성폭력 사례분석과 대응 : 주종미 (호서대 교수)
- ◆ 발제3. 성폭력 관련 체육계 전반의 신고시스템 문제 :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 ◆ 토론. 이병진 (대한체육회 감사실장), 정희준 (동아대 교수)

자료집 목차

- 5 _ 인사말 : 유은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7 _ 발제문1. Me와 Too사이에서 체육계 미투는 왜 번지지 않을까를 묻다
: 정용철 (서강대 교수)
 - 15 _ 발제문2. 체육계 성폭력 사례분석과 대응 : 주종미 (호서대 교수)
 - 29 _ 발제문3. 성폭력 관련 체육계 전반의 신고시스템 문제 :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법조계를 거쳐 교육계·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투운동은 사회 구석구석에 성범죄의 마수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여성들이 일터에서, 일상 공간에서, 배움의 터전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육계만은 미투운동의 무풍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체육계가 성범죄의 청정지대이기 때문일까요? 여성체육인들은 한목소리로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체육계 구조가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하는데 최적화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수면위로 드러난 체조협회 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체조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성폭력 가해자는 오히려 승승장구했고, 용기를 내어 사건을 폭로한 성폭력 피해자는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간 관련부처와 단체가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쏟아냈던 대책들은 정작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체육인들을 성범죄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선수, 선수-선수의 갑을관계로 얽히고설킨 폐쇄적인 체육계 구조를 개혁하는 한편, 남성 중심적인 체육계 인사구조를 손봐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체육계의 성인지도와 민감도를 키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수면위로 드러난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가해자는 철저히 단죄하고 피해자는 2차·3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게을리 해선 안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체육계 성폭력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 입법으로, 제도개선으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여성체육인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2018년 8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유은혜

Me와 Too사이에서

체육계 미투는 왜 번지지 않을까를 묻다

정용철 / 서강대 교수,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내가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니, 안다. 지난 6월 중순, 여성인권진흥원 회의실에 모여 스포츠 미투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기획할 때, 그 자리에 있던 ‘거의’ 유일한 남자였기 때문이다¹⁾. 그 때 결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다룰 사건의 가해자는 남자였고 피해자(혹은 생존자)는 여자였다. 피해자 편을 드는 가해자 종족의 멤버. 매우 드물다. 특히 우리나라 체육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남성이 갖는 여성에 대한 우월적 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걸 활용하려고 한다. 나는 힘을 가진 가해자(들)과 같은 종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다.

아무리 선의로 무장되어 있다 해도 미투 당사자도, 여성도 아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허접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걸 전문용어로 ‘민폐’라 부른다. 레베카 솔닛은 이런 남성들의 성향을 꼭 짚어 ‘맨스플레인²⁾’이라고 명명했다.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이 글을 쓰고 있다.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지난 3주 동안 내 손을, 머리를, 그리고 가슴을 스쳐간 책들은 다음과 같다. 록산 게이의 형거

1) 다른 한 명은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이다.

2) 맨스플레인(mansplain)은 남자(man)와 설명하다(explain)을 결합한 단어로, 대체로 남자가 여자에게 의기양양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다.

Hunger, 정희진의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그리고 낯선 시선, 수전 펠루디의 백래시 Backlash, 레베카 솔닛의 멀고도 가까운, The Mother of All Questions, 그리고 마사 누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과 혐오에서 인류어로. 한채운, 권명아, 목수정의 글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다. 모두 여성작가다. <82년생 김지영>으로 유명한 조남주 작가의 신작 <그녀 이름은>은 특히 개발적이었다. 아홉 살 어린이부터 예순아홉 할머니까지 60명이 넘는 여성들을 인터뷰해서 썼단다. ‘내가 겪은 일은 별일도 아닌데’라며 덤덤하게 시작한 그들의 이야기는 (적어도 내겐) 충격적이었다.

내 주위에 늘 존재했던, 별일 아니라는 그녀들의 경험은 오랫동안 내가 닿지 않는 곳에 멀리 비켜 있었다. 아니, 눈앞에 있었는데 내 시선이 번번이 이를 빗겨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 글의 구체적인 목표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이 유독 체육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원인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밑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다.

침묵과 고요

지난 1월 29일 jtbc 뉴스룸을 통해 서지현 검사는 자신에게 가해진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했다. 이후 미투운동은 연쇄적으로 정계(안희정), 문단(고은), 연극계(이운택), 영화계(김기덕)로 번지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5월 19일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경찰의 몰카 촬영 편파수사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만 2천명의 여성이 도로를 가득 메웠다. 아마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번 주말(8월 18일)에 열리게 될 집회는 사상최대가 될 것이다.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그러나 늘 존재해 왔던!)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운동이 번지고 있는데 유독 체육계는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하다. 이 조용함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섬뜩하다. 체육계만큼 이 방면으로 독보적(?)인 분야가 있을까? 성폭력과 폭력의 전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체육계가 미투운동에서는 왜 조용한 것일까?

이 조용함은 고요quietness인가? 침묵silence인가? 고요와 침묵은 둘 다 소리가 없는 상태, 즉 음향적으로는 같은 상태이지만 결과는 극과 극이다. 레베카 솔닛은 침묵을 말해지지 않은 것, 말할 수 없는 것, 억압된 것, 지워진 것, 들리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바다라고 비유했다. 침묵은 강요된 것, 그리고 고요는 추구된 것이다. 평온과 성찰을 위해 말하지 않는 것(고요)과 위협과 장벽의 견고함 때문에 말해지지 않는 것(침묵)의 차이는

해엄과 익사만큼이나 크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체육계 미투의 조용함은 고요가 아니라 침묵이다.

미투운동의 본질은 누군가의 외로운 외침에 대한 약자들의 연대적 저항이다. ‘나는 당했다’라는 독백이 ‘나도 똑같이 당했다’라는 집단적 외침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영어로 Me와 Too 사이에는 쉼표(,)가 있다. 기이하게도 체육계 미투에서 미와 투 사이에 있는 쉼표는 거대하다. 개별화된 Me(들)은 쉼표를 넘어 Too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다. 이 쉼표 안에 있는 무엇이 침묵을 강요하는지 더 들여다봐야 한다.

침묵의 이유 1 - 고통

입을 열어 성폭력의 기억을 떠올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불에 덴 아이가 불을 무서워하듯 과거의 아픈 상처를 꺼내는 일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다. 때때로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큰 아픔이다.

“일본군대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입니다.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 도대체 왜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었소. 누가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이제 내가 나이가 70이 다 되었소. 이만큼 나이 먹고 이제 죽어도 괜찮아. 나올때 좀 무서웠어요. 죽어도 한이 없어. 하고 싶은 말은 꼭 하고야 말 거요. 언제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자신의 과거를 밝힌 故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다. 인터뷰 중에 그녀는 죽어도 괜찮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침묵의 기간이 늘어난다. 체육계 미투가 잘 번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체육계에서 벌어진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고 일상적이었다는 데 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억지로 깬 경우도 있다. 2012년 가을, 핸드볼 선수생활을 하다 그만둔 제자가 은퇴한 여자핸드볼 선수들의 이야기를 논문으로 쓰고 싶다고 해서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 처음 접촉한 은퇴선수는 10명이었는데 모두 거절했다. 연구자와 과거 함께 운동을 했던 동료인데도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고개를 저었다. 가까스로 설득한 4명의 은퇴선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그들이 힘들어 했는지 알았다. 전사한 인터뷰를 앞에 두고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도 그 때 코치선생님과 같은 연배의 아저씨들을 보면 멈칫한다는 그녀. 실내화로 얼굴을 맞고 발에 채인

그녀. 뺨을 맞아 콧볼이 찢어져 응급실에 갔던 그녀. 그녀들은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검사한다며 자신의 혀를 귀에 넣고, 전지훈련 중에는 방으로 불러 눕히던 그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학회지에 실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다. 고통을 견디고 인터뷰에 응해준 선수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하다.

침묵의 이유 2 - 학습된 무기력과 길들여짐

침묵의 두 번째 이유는 고통을 삼키고 목소리를 내도 아무도 듣지 않거나 들어도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자포자기에 이르는 상태가 된다. 아무리 소리쳐봤자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똑같은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밝힌 핸드볼 선수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말해 봤자 변하지 않을 현실 앞에서 피해자는 입을 닫는다.

2016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고, 바늘귀를 통과한 성폭력 피해사건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력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불기소 비율(51.6%, 201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을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체육교육과 지도교수 정00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이00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8월 14일(이 날은 국가가 지정한 일본군 피해여성 기림의 날이기도 하다) 내려진 안희정의 1심판결 무죄도 우리 사회의 학습된 무기력증을 심화시킬 것이다.

체육계에 만연한 학습된 무기력증은 일단 내려진 징계가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몇 개월 만에 멀쩡하게 복귀할 때 증폭된다. 이경희 코치의 경우, 가해자인 김00이 체조협회 전무이사를 그만두면서 다시 돌아온다고 주위에 말했고, 실제로 최근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의 복귀를 시도한 바 있다.

이럴 때 체육계는 침묵한다. 이 침묵이 가장 무섭다. ‘당사자가 아니니 괜한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혹은 ‘한국 정서상 이런 건 그냥 덮고 넘어가야 한다(바로 엇그제 들은 이야기다)’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고 침묵한다. 이 침묵은 살인이다. 김응교 시인은 ‘비루한’이라는 시를 통해 이렇게 경고한다.

침묵이 살인인 경우도 있지
 눈앞에 다가오는
 폭주 기관차를 향해
 기찻길로 기어가는
 아이만 바라만 보는
 벽돌보다 무거운 그림자

 아이 백 명 모두 치여 부서져도

 피곤하다며 조용히
 책을 덮는 딱딱한 헛바닥,
 똥똥 부표처럼 떠다니는
 슬픔의 익사체를 무시하고
 멀리 외면하는 고요

〈김응교, 부러진 나무에 귀를 대면, 2018, 91쪽〉

죽음과도 같은 무기력증을 떨쳐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승리의 기억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김은희 씨의 케이스는 소중하다. 이런 승리들이 모여야 강고한 침묵의 벽을 깰 수 있다.

침묵의 이유 3 - 언어의 부재, 조각난 서사

트라우마는 삶의 이야기를 산산조각 낸다. 개인의 서사를 더 이상 하나의 서사로 인식되지 못할 정도로 만든다. 간혹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스스로조차 믿지 못한다. 그렇게 조각난 이야기는 그들이 진실되지 않고,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증거로 채택된다. 강간은 자아와 그녀의 이야기를 박살내는 행위다. 침묵은 자신을 가두는 우리cage가 된다.

12살 때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들로부터 집단강간을 당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록산 게이는 자신의 몸을 남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먹고 또 먹었다. 이 사태를 설명할 어떠한 언어도 없었던 그녀는 부모님에게는 착한 딸로 연기하면서 자신의 몸을 부풀려 안전하게 만든다. 그녀를 범한 소년들은 각기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학교 모든 아이들에게 퍼트렸고 그녀는 '걸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그들의 이야기에 둘러싸인 그녀의 이야기는 질식되었다. 그녀의 고백은 침묵의 참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그가 말했다’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진실을 삼켜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삼키고, 그렇게 하면서 진실은 변질된다. 변질된 진실은 감염처럼 몸에 퍼져나간다. 우울증이 되고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되며, 그 밖에도 그녀가 말할 수도 있었고 말해야만 했으나 하지 못했던 그 말은 침묵이라는 독이 되어 다양한 육체적인 증상으로 확대된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는 나 자신을 점점 더 싫어하게 되었다. 내가 역겨웠다. (...중략...) 그 소년들은 나를 아무것도 아니게 대했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룩산 게이, 2017, 64-5쪽).

아프면 신음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온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말이 되는 건 아니다. 말과 사투를 벌이는 룩산 게이의 ‘능력’을 부럽다고 한 정희진의 말이다. 사투 끝에 룩산 게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다. 어쩌면 그녀가 쓴 ‘헝거’는 목소리를 찾기 위한 마지막 투쟁이었을지도 모른다.

룩산 게이의 글은 강하고 아름답다. 특히 부정문을 쓰고 곧바로 아니라고 반박하며 정확히 그 이유를 말하는 화법을 사랑한다. 고백하자면 이 글의 첫 부분 ‘내가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니, 안다’는 그녀의 화법을 흉내낸 것이다. 일테면 이런 식이다.

내가 왜 음식에 의지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아니, 안다. 나는 외로웠고 겁먹었고 음식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었다. (중략) 음식은 내 손이 닿는 곳에 있었던 단 한 가지 위로였다 (룩산 게이 2017, 73쪽).

‘모른다’와 ‘아니, 안다’ 사이에도 영어 원본에는 쉽표가 있다. 그 쉽표에는 그녀가 싸워온 긴 시간과 고통, 그리고 이를 정면으로 대항하는 용기와 넘어섬이 담겨있다.

쉽표를 넘어가기 위해 - 서사/언어/목소리의 회복

미와 투 사이에 있는 쉽표에서 체육계 미투가 널리 퍼지지 못하는 이유와 이를 극복할 힘을 동시에 본다. 이유를 살폈으니 이제 극복할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할 차례다.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치유한다. 산산 조각난 피해자(혹은 생존자)가 말하고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동안 침묵을 깨고 쉽표를 넘어갈 힘이 생긴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조각난 서사를 회복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서정화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모굴스키 선수다. 선수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스포츠심리를 전공하다보니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선수를 만났다. 서정화 선수는 그 중 한 명이다. 은퇴 후 법학전문대학원 시험을 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카고 대학의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의 책을 권했다. 세계 100대 지성으로 꼽히는 인물이지만 그녀 역시 하버드 대학시절 법대 지도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바 있다. 서정화 선수는 '시적 정의', '혐오에서 인류애로'를 읽고 법을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더 굳혔다. 평소 글을 써왔기 때문인지 내가 만난 국가대표 선수 중에 가장 글을 잘 쓰는 선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 시작하기 일주일 전, 늦은 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올림픽이 끝나고 일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고가 터졌다. 남자 선수 두 명이 술을 먹고 여자 선수 방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가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가해자 두 명, 피해자 두 명. 모두 국가대표선수다. 이 일로 남자 선수 두 명은 국가대표에서 영구제명 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재심을 청구하고 소명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자선수가 평소에 자신을 좋아했다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폈다. 가해자를 고소한 다른 피해자와는 달리 고소를 하지 않았던 서정화 선수는 결국 지난 주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고소를 했다. 고소를 안했다는 걸 빌미로 계속 무고를 주장했다기 때문이다. 7월 15일에 있었던 법학전문대학원 시험은 그저 그렇게 봤다. 쉽지 않을 시간을 잘 버티고 있다. 지난주에 만났을 때 2018년 2월 28일 새로 쓰기 시작한 일기장을 보여줬다. 일기장은 불과 3일 후 3월 2일에서 멈췄다.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열흘 만에 몸과 마음을 추슬러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여전히 글을 쓰고 있고 글을 쓰는 한 서정화 선수의 싸움에는 승산이 있다고 믿는다.

내가 만난 선수 중 서사의 회복을 통해 싸우고 있는 전사는 또 있다. 국가대표 상비군 체조코치 이경희 씨다. 90년대 초 리듬체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북한에서 인민영웅으로 추앙받던 그다. 이미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jt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져 있다. 공대위가 꾸러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 토론회를 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다 이경희 코치 덕분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체조협회 전 임원 김00은 아직도 여러 가지 경로로 그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처음 만났을 때 두 시간 내내 거의 울기만 했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생각, 기억을 지우고 싶은 생각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그녀의 서사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잘 싸우려면 자신부터 잘 돌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일 한 시간 반씩 걷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왔다. 매일 쓰고 걷는 한 이경희 코치의 싸움도 승산이 있다고 믿는다.

조각난 서사의 회복은 성폭력 사건을 직접 당한 생존자 뿐 아니라 이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작업이다. 체육계 미투가 동력을 가지고 퍼져 나가려면 먼

저 우리사회에 성폭력에 대한 성공적인 메타서사가 필요하다. 그 이유를 조민주의 소설에 등장하는 소진은 이렇게 설명한다.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팀장에게 보고하고 오히려 꽃뱀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소진은 매일, 매 순간순간 후회한다. 변호사에게, 선배에게, 가족들에게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묻곤 한다. 모두들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 너무 힘들면 여기서 멈추어도 된다고 말하지만 소진은 멈추지 않는다.

‘같은 과장에게 성희롱 당하다 퇴사했다는 직원은 소진을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때 자신이 조용히 덮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소진도 같은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자책했다. 물론 소진은 그녀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용히 덮고 넘어간 두번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조민주, 2018, 20쪽)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조용히 덮고 넘어간 두 번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끝.

체육계 성폭력 사례분석과 대응

주종미 / 호서대 교수

Key Points

I . 체육계 성폭력 사례 분석

II . 체육계 성폭력 해결방안

I. 체육계 성폭력 사례 분석

✓ 체육계 성폭력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다!



I. 체육계 성폭력 사례 분석
Continued...

✓ 성폭력 관련 연구들

- 주종미 (2006). 스포츠현장에서의 여성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 주종미 (2007). 여성체육인의 성(性)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노력
- 주종미 (2007.05.31). 운동부 지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네 가지 법적이슈:
약물, 폭행, 성폭력, 그리고 안전관리
- 주종미 (2008). 운동부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 주종미 (2012). 스포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성폭력 방지대책
- 주종미 (2013). 체육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 주종미 (2013). 스포츠 윤리, 누구의 책무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주종미, 남기연 (2013). 선수 성추행 한 감독에 대한 프로구단의 사용자책임
- 주종미 (2014). 체육인의 윤리란 무엇인가?
- 주종미 (2014). Legal and Institutional Proposals to Realize Gender Equity in School Sport: Application of Title IX of the U.S.

✓ 사례들의 특징

- 01) 피해자 대부분 여자 & 청소년
- 02) 가해자 대부분 학교 체육교사 또는 코치 (권력의 차이)
- 03) 운동부 숙소 또는 전지훈련 장소
- 04) 비밀리에 발생, 증거 없음
- 05) 성폭력은 지속 반복
- 06) 가해자에 대한 숨방망이 처벌
- 07) 피해자의 2차 피해
- 08) 기관 책임 회피



✓ 그동안의 대안들

- 01) 운동부 내 성폭력 상담 활성화
- 02) 예방교육(온/오프라인) & 상담일지
- 03) 가해자 강력 처벌
- 04) 지도자 처우개선
- 05) 가해자 무관용 원칙
- 06) 지도자 선발/채용 시 검증체계 강화
- 07) 성차별적 관행 개선
- 08) 외부전문가(성/폭력, 변호사) 포함
- 09) 모니터링 체계 강화
- 10)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 11) 홍보강화
- 12)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기능 강화
- 13)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 14) 체육계 관행 개선(실적위주)
- 15) 인권보호 캠페인
- 16) 과학적 훈련방법 개발

✓ 체육계 용기 있는 '미투'



미투(#Me Too)선언 김은희,



✓ 체육계 성폭력 발생 이유?

첫째, 체육계 성폭력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전통의식'

기인한다는 인식과 함께 한다.

둘째, 체육계만이 갖는 '특수한 구조'에 의해

성폭력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체육계 특수성은 성폭력의 특징과 닮아 있다!

-신체접촉 있음

-폐쇄적 상황

-권력의 차이(힘의 불균형) 존재

✓ 스포츠계의 '특수한 구조'?

- 1) 지도자 비정규직 신분
- 2) 전형적인 권력의 갑을 관계 존재
- 3) 집단성과 폐쇄성
- 4) 낮은 성인지도와 민감도
- 5) 제한적인 진로 선택
- 6) 침묵의 카르텔

⇒ 절대 권력자인 지도자에 의해 집단적·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운동부 내에서 오로지 운동 이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복종에 길들여져 온 선수일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고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II. 체육계 성폭력 해결방안

✓ 체육계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체육계 구조를 개혁하는 것!



1. 지도자의 고용/처우 개선

「학교체육진흥법」

- '학교운동부지도자' 규정
- 학교장의 결정권(실적위주)
 - 지도자의 자격, 임용, 급여, 신분, 직무
- 학교장이 재임용 여부 결정
 - 직무, 복무태도, 학교운동부 운영성과
- ✓ 지도자 고용/처우 개선은 체육인의
성폭력 예방 기여!



2. 지도자 선발/채용시 검증체계 강화

- 성폭력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선발/채용시)
-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의무화
- 계약시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한 **해임** 명시
- 계약시 성폭력 **방지의무** 준수 명문화
- 지도자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관리
- ✓ 지도자 검증체계 강화는 성폭력 예방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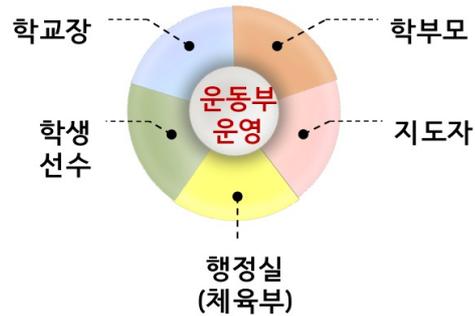


3. 지도자의 절대 권력 분산

- 운동부 운영에 관해
지도자에게 전권 부여??
- 1년 단위 계약??
- 성과 불만족 시 재임용 탈락??
- 학교장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제도!!
- 사용자책임 의식 결여!!

✓ 지도자의 절대 권력 분산은
선수의 인권 보장에 기여!

<절대 권력 분산 필요>



4.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 진정한 학습권 보장? 단순 공부?
「학교체육진흥법」 최저학력제 학업성적 중시
- 선수들에게 학습권 왜 보장?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얻은 학생은 다양한 꿈
- 축구선수가 공부 X, 학생이 축구한다 0
- ✓ 선수 이외 다른 대안이 있는 학생은 절대권력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5. 인권 침해 온상 '합숙소 전면 폐지'

[특집]학원 스포츠 고질병은 '합숙훈련' - 주간경향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410131718381>

2014.10.21 | 주간경향 1097호 [특집]학원 스포츠 고질병은 '합숙훈련' 김태훈 기자

여전히 쉬쉬하는 스포츠클럽 수많은 '도가니' 사건 - 여성신문

www.womennews.co.kr > 사회

2011. 10. 21. - 당시 방송에서 여린 여자 선수들이 합숙소에서 자는 동안 감독에게 끌려가지 ... 조사에 따르면 실제 성폭력 사건이 합숙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중·고교 운동 선수 78% 폭행 피해, 63% 성폭력 노출

프레시안뉴스 - 2008. 11. 19.

피해 장소는 주로 합숙소나 기숙사였으며, 특히 친구, 선후배 간 성폭력 ... 16.3%는 "그런 이유로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했다.

「학교체육진흥법」

-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
- 원거리 통학 선수 위한 기숙사 운영 가능
- 기숙사요건: 학습시설,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
- 관리 전담 교직원 배치
- 여학생 기숙사에는 여성교직원 배치
-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실효성 없는 현행 기숙사 제도
성폭력 발생 가능성으로 폐지 필요**

6.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강화

<대한체육회>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명	4,122	12,910	18,110	24,301	30,075	30,626	39,149	37,820	42,522

- 강사 (158명) :
 - 대한체육회 전문상담사 (4명) / 스포츠인권센터 근무
 - 대한체육회 전문강사 (20명) / 2018년부터 운영
 -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전문인력풀 (134명)
- 교육대상 :
 - 초·중·고·대학교 / 일반 (10,114 개 팀)
 - 100,508명 (선수 : 90,394 명 / 지도자 : 10,114 명)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인권감수성이란?
일상 생활에서 마주하는 인권적인 요소에 나 자신이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느끼는지 또 매우 작은 일에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여 얼마나 인권을 고려하고 있는 지를 말한다.

-성인지(gender-sensitive)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 정책집행자가 성인지 감수성이 있으면 특정정책에서의 성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 시민에게 성평등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

- ✓ 교육강사 수 확대 및 질적인 교육 제공
- ✓ 인권감수성 및 성인지 교육 강화 (예방 및 대처 뿐만 아닌)

7.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대한체육회’

- 학교체육 진흥 전담 역할 기대 어려움
- 역할의 다양성 & 한계성 때문
- 학교체육 전담 기구 설립 필요

✓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필요

- 선수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역할 제공 가능성 큼

「학교체육진흥법」

- 지도자 고용 -합숙소 -학습권
- ✓ 위 관련 징계 조항이 없음
- 선수 인권 보장을 위해 위 내용 위반 관련 징계 조항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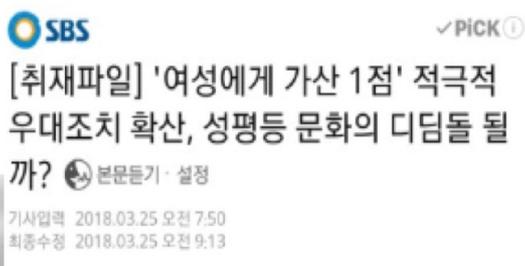
8. 여성스포츠 종목 '여성지도자 비율 확대' 및 공개채용 의무

- ✓ 여성스포츠 종목에 여성지도자 비율 확대 및 공개채용으로
성폭력 문제 해결 및
여성스포츠인 인권 신장 기여

✓ 어떻게 여성지도자 비율 확대?

1) 적극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도입

- 지원자의 자격이 동등한 경우 소수자(여성) 우대 채용



2) 'Rooney Rule' 도입

- 2003년 'Daniel Rooney' 제안으로 시작
 - NFL Pittsburgh Steelers 구단주, NFL 다민족 분과위원회 위원장
- NFL 구단 감독 지원자 중 소수인종이 있을 경우 그들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최종 인터뷰 해야 함
-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우대조치)의 좋은 예로 불림
- 이를 어길 경우 벌금
 - 2003, Detroit Lions, fined \$200,000 (약 2억 1천만 원)
 - 2018 (조사중), Oakland Raiders, \$1 million (약 10억 8천만 원)
- 다수 기업들이 Rooney Rule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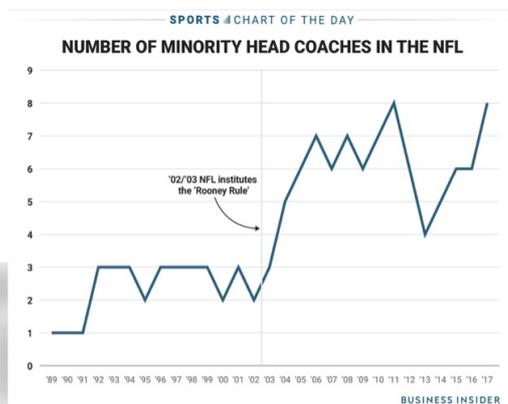


Oakland Raiders' penalty needs to be severe if team violated Rooney Rule

Jarrett Bell, USA TODAY Sports Published 3:03 a.m. ET Jan. 11, 2018 | Updated 2:55 p.m. ET Jan. 11, 2018



SportsPulse: If the Raiders broke the Rooney rule - in their process of hiring Jon Gruden - the consequences should be stiff. USA TODAY Sports



9. '관리감독자의 책임 강화'

✓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성폭력 문제 해결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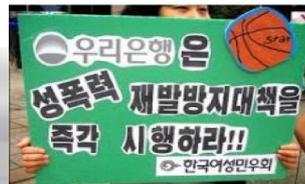
여성스포츠인 인권 신장 기여

✓ '관리감독자의 무책임 (한국)'

- 박명수 전 우리은행 감독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구속
- 2007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 해당 구단(우리은행) 무책임 행동
 - 사표 수리일자를 사건 발생 이전 처리
 - 성추행 사건 책임 없음 주장
 - 발생사실 알고도 묵인 은폐
 - 고소 포기 증용



✓ '관리감독자의 엄격책임 (미국)'

-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 '샌더스키' 풋볼 코치
- 15년 동안 10명 이상 남자선수 성추행
- 감독 조 패트노'와 학교는 명예 위해 사건 은폐
- 대학은 거액의 퇴직금 주고 사건 무마
- NCAA(미국대학스포츠협회)의 조치
 - 대학에 벌금 6천만불(약 6백억원)
 - 포스트시즌 4년 출전 금지
 - 풋볼 선수 장학금 지급 감축
 - 14년 풋볼 승리 기록 삭제
 - 조 패트노 감독 111회 승리기록 삭제 & '가장 성공한 코치' 타이틀 기록 삭제



✓ '관리감독자의 엄격책임 (미국)'

- '래리 나사르'
- 미국 국가대표 체조팀 주치의 & 미시간주립대 교수
- 20년간 여자 최소 322명 성추행 및 성폭행
- 대학은 피해자들의 호소 무시, 문제 축소
- 여성 156명이 한 명씩 나와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증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포함
- 조치:
 - 법원: 2018년 1월24일 징역 175년 선고
 - 대학: 피해 배상금 5억 달러(약 5,400억 원)
 - 대학 총장 사퇴
 - 체조협회 고위급 인물 대거 사임



나사르에 대한 판결 이후, 울먹이는 피해자들 (UPI/연합뉴스)

✓ 관리감독자가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무관심?

-기관평가에 반영

-예산삭감

-해당 기관 대회출전금지

-강제 피해배상 절차 촉구

✓ 결론

-그 동안 대한체육회를 필두로 각 분야에서 체육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실제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짐

-그러나 체육계에는 여전히 성폭력과 같은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견

-이제 체육계는 더 이상 과감하고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미루어서는 안 됨

-국민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기대수준이 크게 향상된 상황에서

향후 체육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체육계는 더 이상 존립 기대하기 어려움

-더불어 여성스포츠인 스스로 인권보장을 위해 연대하고 노력해야 함

성폭력 관련 체육계 전반의 신고시스템 문제

김은희 / 고양테니스아카데미

판 결 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96 강간치상
2016전고14(병합) 부작명명청구
피고인 겸 피부작명명청구자
김 [] (78 [])
주거 원주시 소초면 []
등록기준지 강원 철원군 []
검 사 김현지(기소), 양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 []
판 결 선 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작명명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춘천)2017노156 강간치상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현지(기소), 이자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0. 13. 선고 2016고합96, 2016전
고1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요약



소송 진행 과정



신고 기관

01

광주여성의 전화

- 의료비 지원
- 무료 법률 상담

02

해바라기센터

- 고소장 접수
- 피해자 진술조사
- 국선변호서 선임

03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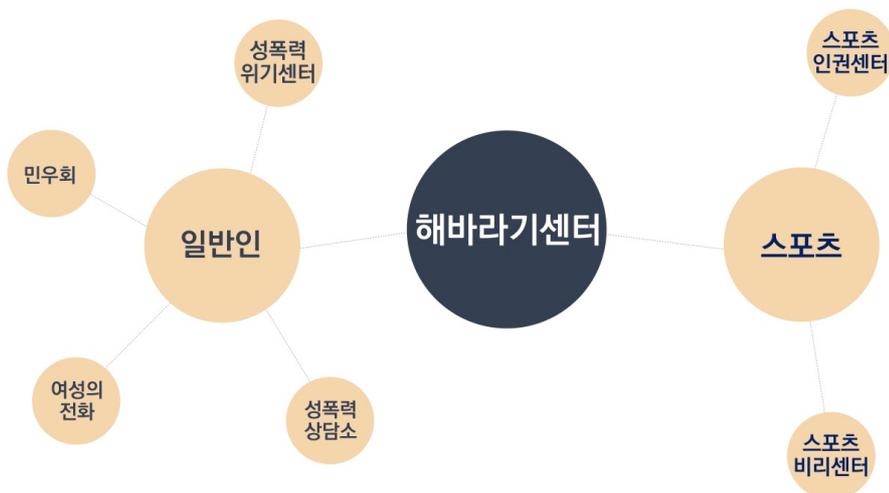
- 16. 8. 2 신고(메일)
- 17. 12. 초 징계결과 통보
- 약 1년 4개월 소요.
(16개월)

04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센터)

- 16. 7. 30 신고(메일)
- 18. 3. 16 징계결과 통보
- 약 1년 8개월 소요.
(20개월)

관련 기관



관련 기관

질문 하나.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질문 둘.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문제점

- 01 **복잡한 이해관계** (폐쇄집단, 입장차이, 선발, 진로, 계약 등)
- 02 **진로의 다양성 부재** (운동선수 or 코치 or 체육관련전공)
- 03 **인식변화의 뒤처짐** (동영상촬영, 자기결정권 등)
- 04 **신고기관의 운영방식 문제** (상위 기관의 관리, 감독 등)
- 05 **처벌 이후 관리 미흡** (범죄이력 조회 X, 정보공개 X, 재취업 가능O)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피해자는 두렵고, 외롭고, 약하다.”

#With you

—
감사합니다.